

포트홀 도로 곳곳이 '지뢰밭'

겨울 폭설로 제설제 다량 사용...예년보다 크게 늘어 광주시·5개 구청 복구 미적 미적...운전자들 위험천만 올들어 응급복구 건수만 6354건...작년 절반 훌쩍 넘어

19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공영역 1번 출구 앞 편도 3차로에서는 아찔한 '꼭에운전'이 이어졌다.

운전자들이 순간 발견한 '포트홀'(pothole·도로 표면이 움푹 패인 곳)을 피하려고 차선을 급변경하면서 옆 차선을 달린 차량과 충돌할 뻔 하는 장면이 수차례 목격됐다.

이곳에는 지름 10cm에 이르는 크고 작은 포트홀 10여개가 곳곳에 형성돼 있었다.

광주 도심 곳곳에 예년보다 유난히 많은 포트홀이 발생해 시민의 안전운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겨울 광주에 내린 역대급 폭설로 도로(아스콘)를 부식시키는 수천톤의 제설제가 뿌려진데다, 해빙기를 맞아 수시로 폭우까지 쏟아지면서 도로 곳곳이 파이고 있어서다.

하지만, 광주시와 각 자치구들은 예산·인력난을 핑계로 평년 수준의 소극적인 보수작업에 나서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3월 18일까지 3개월여 동안 광주에 발생한 포트홀 중 응급복구된 포트홀은 6354건이다. 이는 지난해 1만1978건의 절반(53%)을 넘어서는 수치다. 현재까지 상당수 포트홀이 복구되지 않은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올 봄 포트홀이 급증한 것은 지난 겨울 뿌린 제설제와 해빙기 폭우, 큰 일교차 등의 영향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제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올 겨울(2017년 11~2018년 2월)도로에 뿌린 소금과 염화칼슘은 5077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323t)보다 무려 1754t이나 늘었다.

올해는 또 도로에 포트홀이 많이 생기는 해빙기를 맞아 포트홀 발생의 주원인 중 하나인 강수량도 높았다.

실제 지난 1월 10일 광주에는 17.1cm의 눈이 내렸고, 지난 15일에는 봄비로는 그 양이 많은 30.8mm의 강수량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3월 들어 일교차가 큰 변덕스런 날씨도 포트홀 형성에 한몫을 했다.

광주시지역은 3월 들어 아침 최저기는 영하 3도에서 낮 최고기는 24.8도를 기록하는 등 큰 일교차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밤낮으로 도로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아스콘에 균열을 일으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자치단체의 '응급 땀질식' 포트홀 보수 방식도 문제다.

쏟아지는 포트홀 수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무리하게 응급보수하는 과정에서 이물질 등이 유입되면서 그곳에 공간이 생겨 포트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도로포장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원택 호남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지금보다 아스콘의 두께를 두껍게 할 경우 포트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면서 "지자체도 알고는 있었지만 예산이 부족해 그러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임남진 광주시 도로관리담당은 "현 예산과 인력 시스템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도로를 관리하고, 포트홀까지 제때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특히 아스콘(아스팔트)의 경우 6년이 지나면 다시 포장해야 하는데도, 관련 예산이 부족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광주시 복구청 긴급도로보수팀 직원들이 최근 응급복구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포트홀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여수 상포지구 특혜 관련 공무원 4명 조사

인허가 과정 특혜 여부 추궁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수시 돌산을 상포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 여수시청 공무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여수시청 공무원 A씨 등 4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상포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여수시가 특혜를 줬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 돌산을 우두리·평사리 일대를 매립해 개발한 상포지구는 1994년 조건부 준공 후 20년 넘도록 방치됐다.

2015년 Y사가 이 용지를 매입하면서 택지개발을 재개했지만, 인허가 과정에

서 여수시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인허가 과정에서 인사 비리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달 28일 인사 업무 담당 부서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상포매립지 개발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개발업자 2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혐의를 포착했다.

개발업체 대표인 김모(48)씨와 이사 박모(40)씨는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해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보이스피싱 조직원 도피 돕고 돈 받아 쟁건 중국인 검거

70대 노인을 속여 수천만을 가로챈 전 화금용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도피를 돕고 피해금 절반을 받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광주북부경찰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받아 쟁건 혐의(장물취득)로 중국인 A(34)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께 조선출신 보이스피싱 조직원 B(23)씨로부터 피해금 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6일 광주시 북구에 거주하는 노인 C(여·79)씨가 보이스피싱 조

직에 속아 집 세탁기에 보관한 현금 3000만원을 훔쳐 달아나던 중이었다. B씨는 경기도 안산의 A씨 집에 머문 뒤 지난 11일 중국으로 출국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B씨는 도피처를 마련해 준 A씨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훔친 돈의 절반인 1500만원을 건넸다.

경찰에 잡혀진 B씨는 돈의 행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50대 환경미화원, 동료 살해 시신 조각장 유기 쓰레기 봉투 담아 직접 수거 1년간 치밀하게 범행 은폐

동료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한 환경미화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은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의 이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6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원룸에서 동료 양모(59)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이튿날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쓰레기장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양씨를 살해하고 검은색 비닐봉

지 15장으로 시신을 겹겹이 감싸 일반 쓰레기로 위장했다.

이씨는 봉투에 시신이 들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옷가지와 이불로 시신을 감싼 뒤 다시 봉투에 넣었으며, 부피가 큰 시신이 완전히 봉투에 들어가지 않자 덮이지 않은 부분을 다시 봉투로 싸워 은폐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씨는 또 시신을 여는 쓰레기와 다르지 않게 처리하려고 자신의 쓰레기 수거 노선인 한 초등학교 앞 쓰레기장에 던졌다.

일과를 시작한 이씨는 같은해 4월 6일

오전 6시 10분께 양씨 시신이 담긴 봉투를 쓰레기 차량으로 수거한 뒤 조각장에 유기했다.

이씨의 범행은 양씨 가족이 경찰에 양씨를 가출신고하면서 들통을 잡혔다.

당시 경찰은 일반 실종사건으로 판단했지만, 양씨가 인천지역 술집에서 사용한 카드사용 내역이 발견되면서 강력사건으로 전환됐다. 술집에서 카드를 사용한 이는 양씨가 아닌 이씨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씨는 양씨를 살해한 뒤 그의 카드로

6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결제했다.

이씨는 또 양씨가 살해된 사실을 숨기려고 경기도 광명의 한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구청에 양씨 명의의 휴직계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양씨가 내 가발을 잡아당기며 욕설을 하자 화기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양씨에게 그동안 8000여만원을 빌린 사실이 확인돼 금전 관계에 의한 범행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음=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연합뉴스

공원서 초등학생 문 반려견 주인 입건

광주의 한 공원에서 어린이가 개에 물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광주북부경찰은 초등학생 어린이를 문 반려견 주인 A(여·50)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반려견은 지난 18일 오전 11시20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두암체육공원 인근에서 B(8)군의 왼쪽 무릎을 물었다.

B군은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형 크기의 A씨의 반려견은 당시 목줄을 하고 있었지만 입마개는 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4시간 아울렛 화장실 숨어 있다 운동화 1켤레 훔친 60대 텃밭

○4시간 가까이 아울렛 화장실에서 숨어 있는 고생 끝에 신발을 훔쳐 달아난 60대 남성이 뒤늦게 경찰에 들통났다.

○19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박모(60)씨는 지난 6일 새벽 2시10분께 광주시 남구 봉선동 모 아울렛에서 서모(여·29)씨가 운영하는 신발매장 내 남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타 10만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훔쳤다는 것.

○박씨는 범행 전날인 오후 8시 30분께 아울렛의 1층 화장실에 숨은 뒤 자신이 신던 운동화를 버리고 새 운동화를 신고 도망갔는데, 박씨는 경찰에서 "신발이 너무 낡고 냄새가 나 새로운 운동화를 갖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구례, 대형모텔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
- 연수원/요양(병)원 변경가능
- 대572평, 건683평, 객58, 4층건물
- 연 3억이상 순수익 가능
- 전체리모델링(5억), 관광온천지구
- 매18억(대출8억포함, 조정가)
- 문의. 010-3605-5000

나주, 2층주택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광주에서 40분
- 대지106평, 건물42평
- 보일러등 일부 수리 요함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시세 - 1억 1000만원
- 집마당까지 차량 진입
- 매매 - 8200만원
- 문의. 010-3605-5000